

## 제11과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라

성령의 사람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열한 번째 시간,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자세는 곧 그가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삶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묻고 답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1. 자원자 VS ( )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를 때면 온 나라가 한바탕 전쟁을 치룹니다. 각자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각 대학은 그 가운데 능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려고 애를 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업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또 치룹니다. 각자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스펙을 쌓고,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도 막상 입사 시험에 합격해서 원하는 직장에 가는 사람들은 역시 소수입니다. 세상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필요한 사람을 선발해서 씁니다. 그러니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 1) ( )

세상은 원하는 자의 세상이지만,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름 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1)

---

→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그분이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끄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18-22)

---

→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16)

---

## 2. 자원자와 부름 받은 자의 ( )

성도들은 모두가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원하는 자들의 세상에서 부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자원자와 부름 받은 자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1) ( )

자원자와 부름 받은 자의 첫 번째 차이는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즉 자원자들의 삶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름 받은 자의 삶의 목적은 ‘부르신 분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의 충돌에서 세상의 모든 고난의 원인이 나옵니다. 나도 그것을 원하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수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름 받은 자는 ‘부르신 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3-4)**

---

→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인 우리는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랬습니다. 부름 받기 전에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름 받고, 사명을 받은 후에 그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르신 분이 원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 21:18-19)**

---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름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원하는 것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고 모집한 자의 기쁨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 2) ( )

원하는 자들과 부름 받은 자들의 두 번째 차이는 바로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서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 즉 원하는 자들의 목적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었듯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그들의 능력입니다. 그들은 이 능력을 얻기 위해 24시간이 모자랍니다. 매일 이른 아침에 눈을 떠서, 늦은 밤에 잠들 때까지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일등은 언제나 한 명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일등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일등만이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결국은 소수를 위해 다수는 들러리가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소유하는 경로에 수많은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세상의 구조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부름 받은 사람들이 ‘부르신 자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부름 받은 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복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사도행전 17:24-28)

---

→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름 받은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1-4)

---

→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은 것입니다.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주신 이유는 ‘세상의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부름 받은 자로서의 삶, 즉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28-29)

---

그리고 친히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

### 3) ( )

마지막으로 원하는 자들과 부름 받은 자들의 차이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고난’, ‘어려움’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려움 없이 뜻을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목적이 ‘자신의 뜻’이든 ‘부르신 분의 뜻’이든 그 과정에서 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원하는 자들과 부름 받은 자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원하는 자들의 자세는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다 피하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그들은 원하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원하는 자들은 ‘자기의 바람’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자신의 능력’입니다. 그러다 보니 ‘능력의 한계’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는 내 능력이 보잘 것 없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법이나 불의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해보아도 되지 않을 경우, 원하는 자들은 그 목적을 포기해 버립니다. 어차피 본인이 원하는 것이었기에 본인만 포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며 사는 것을 또한 지혜라고 안위합니다.

그러나 부름 받은 자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분의 뜻이기에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그분께 구할 수가 있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 ① ( )을 내시는 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만한 것도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13)

#### ② ( ) 하시는 분

피할 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14)

---

→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③ (\_\_\_\_) 주시는 분

어떻게 이기게 하시나요? 바로 우리로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절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의 양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28-31)

---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누가복음 9:1-2)

---

→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2-13)

---

→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름 받은 자는 절대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할 수 없습니다’ 우

## □ 묵상과 적용

오늘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할 것들을 적어 보세요!!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